

욥기

세션 5: 욥과 고대 근동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욥과 고대 근동입니다.

검토 [00:22-2:44]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욥과 욥기가 그들이 존재하는 고대 근동 배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문화나 다른 어떤 문화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잔틴 문화를 예상하지 않고 비잔틴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세 문화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동 문화나 아프리카 문화나 미국 문화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요구 사항에는 특정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계획과 목적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를 가정하거나 우리의 문화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기는 고대 세계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고대 세계의 어떤 문학 작품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포성은 대화가 그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가 그 시대와 문화의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문화의 맥락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 책이 이스라엘 사람의 책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즉, 이스라엘인을 위해 이스라엘인에 의해 틀이 잡힌 것입니다.

고대 근동 (ANE) 문학의 경건한 고통 [2:44-6:33]

경건한 환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대 세계에서 알려진 범주에 맞습니다. 경건한 고통받는 사람을 논의하는 문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주어진 답은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발견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패턴을 따르는 고대 세계의 작품 중 일부는 *A Man and His God* 이라는 초기 수메르 작품입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무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상태는 그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책의 끝에서 그에게 죄가 밝혀지고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 책의 배후에 있는 철학은

죄 없는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그 책의 신학인 찬양의 찬송이 됩니다.

Akkadian Mesopotamian 작품은 A Dialogue Between a Man and His God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가능한 범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경건한 괴로워하는 자 모티프는 표면적으로는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경건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그의 신 사이의 이 대화에서 이 인간은 병을 앓고 결국 건강을 회복합니다. 제공되는 철학이 없습니다. 신의 은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Ludlul bel Nemeqi, I will Praise the God of Wisdom입니다. 그것은 Akkadian 작품이므로 바빌로니아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양심적이고 경건하며 가능한 공격에 대해 무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회적 부랑자임을 알게 됩니다. 신들과의 소통이 불분명하다. 그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보호 정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는 악마 억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알린다. 그 결과 그는 달래는 정결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얻었고, 그 자신의 범죄는 태어납니다. 그의 악마는 추방되고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실제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이면에 있는 철학은 신들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신 마르두크를 찬양하는 찬송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빌로니아 신정론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은 경건함을 주장하지만 그의 가족은 떠났고 그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의 목적이 멀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신들이 사람을 악한 성향을 갖고 고통받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단순히 그런 식입니다.

ANE 출처의 아이디어[6:33-11:02]

이것들은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인기 있는 작품들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신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매우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찾은 답은 신성한 불가해성입니다. 당신은 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죄성,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 당신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혹은 신들도 인간을 비뚤어지게 만든다. 다른 때에는

그들은 아무도 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들이 화를 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책임을 묻는 경향이 적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정보가 없습니다. 신들은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이나 바빌로니아인이나 가나안인이나 헷인에 대해 말할 때 신들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인지, 무엇이 그들을 불쾌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신들이 대체로 일관성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만의 의제가 있고 변덕스럽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신의 무시나 분노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변심한 결과라고 느끼더라도 실제로 모든 것을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신들이 화를 내면 그들의 보호를 제거하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악마의 힘이나 주변에 있는 세력의 위험에 처해 취약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Ludlul bel Nemeqi로 식별한 작품에서 환자가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것은

신에게 모욕 이 됩니다 . 하늘에 있는 신이 누구냐 지하세계 신들의 계획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이 어디에서 신의 길을 배웠느냐?”

그의 좌절감이 들리나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지 말하지 않는 강력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까?

상사가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당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지 않은 직장에서 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추측에 따라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았다. 매우 불편합니다.

나는 이 통찰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알려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하신 새로운 감사와 감사를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욥과 같은 책의 문학적 배후에 있는 것, 그 시나리오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까지 그것들을 초월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욥은 이스라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1) 다신교가 없다[11:02-12:12].

이제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욥이 다신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다신교가

신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에 정말 이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은 신성한 회의 때문에 첫 장에서 약간의 공동체를 볼 수 있지만 다신교에 대한 성향은 없습니다. 사실 욥은 다신론에 반대하기 위해 몇 가지 확언을 합니다. 욥기 31장 26절의 맹세에서 그는 해나 달을 향하여 손을 들지 아니하였다고 맹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태양과 달을 숭배했고 기꺼이 그렇게했습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될 것입니다.

2) 어떤 신이 고난을 가져오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12:12-12:46).

두 번째 요점은 욥이 어떤 신이 그를 괴롭게 했는지에 대해 전혀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고 상황을 영망으로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할 다른 사람은 그림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한 신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3) 합당한 또는 과분한 처벌 [12:46-14:33]

그는 자신의 처벌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제 고대 세계에서 나는 다양한 조각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범죄에 대한 무지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범죄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무지했고 어떻게든 신들을 화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범죄가 실제로 그에게 이 형벌을 받게 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한 사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 반대편에 있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들은 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묘사된 의는 고대 세계의 식탁 위에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의례적인 것이지 정의할 수 있는 추상적인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일한 의는 그 요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이스라엘적인 느낌을 줍니다.

4) 욥이 아닌 대공생[14:33-18:24]

또한 이와 관련된 욕기에는 내가 대공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제안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위대한 공생은 신과 사람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신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지쳤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신은 배고프고, 신은 목마르고, 신은 옷이 필요하고, 신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인간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은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식량을 재배하고, 자신의 밭에 물을 대고, 자신의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곤하고 지친 일이었습니다. 신들은 그것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노예 노동을 만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들 것이고 그들은 음식을 재배하고 우리를 먹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고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멋진 집을 지을 것이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애지중지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애지중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공생의 한 측면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신이 인간을 위해 해야 했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비를 내려 사람들이 신을 먹고 자신을

먹일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신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침략자들이 와서 그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축적되는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곳.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기 위해 신들에게 의존합니다.

신들이 정의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정의가 그들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과 혼돈, 사회 문제가 있고 사회가 질서 있고 정의롭지 않다면 모든 종류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일. 임무는 신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사회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신들은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사회에 정의와 질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약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하는 위대한 공생, 상호 의존성, 상호 필요입니다.

5) **옘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가 ?- 이스라엘 사람 [18:24-19:51]**

이제 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때 옘은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위대한 공생의 바로 그 토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도 대가 없이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신을 섬기는 모든 생각은 신이 은혜를 갚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제공한다는 그들의 생각은 신들이 번영과 보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어느 누구도 대가 없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의 전제 자체가 위대한 공생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 책이 얼마나 이스라엘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공생에는 사심 없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6) 친구들과의 욥의 의견 불일치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19:51-21:56]

더욱이 욥이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욥의 이스라엘 사상이 반영됩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욥이 하나님을 달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방법, 물건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전화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든 조언은 물건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물건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욥, 정말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견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책의 문제는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욥은 정말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욥의 의가 무관심한 것입니까? 즉, 그는 정말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의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물건을 복원할 수 있는 이점에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욥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책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욥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독자는 욥의 관점과 자신을 동일시할 것입니다.

7) 책의 초점은 이스라엘인입니다: 의식적 회유 없음 [21:56-23:24]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의 초점은 이스라엘인입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책의 초점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욥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의례적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모든 문학 작품의 방식입니다. 그 생각은 어떤 의례적 범죄가 있었음에 틀림없었고 따라서 어떤 의례적 회유, 어떤 의례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욥기는 단순히 그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화책이 효과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든 신이 비합리적으로 분노하고 달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욱은 설명을 위해 그를 법정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회유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들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식적인 의미의 회유는 아닙니다. 책은 그런 전술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상을 대표하는 친구들조차 의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8) **하나님의 공의와 욱의 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23:24-24:51]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과 욱의 의로움 모두에 이 책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이 책을 고대 근동의 사고 체계와 매우 다르게 만듭니다. 고대 근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신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정의에 관심이 있다고 믿지만, 어떻게든 신들이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제로 그림에 있지 않습니다. 신들은 그들이하는 일을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정의할 수 없는 욱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림 속에 있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보는 또 다른 요점은 욱이 처음부터 바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우, 고대 근동에서 그가 명확하다고 선언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책의 극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모든 고대 근동 설명을 테이블에서 끌어내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옳을 무죄로 만든다면 옳의 고통에 대한 모든 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이 주는 모든 것.

9)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관점[24:51-25:1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이스라엘인의 초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신에 대한 초월적인 관점입니다. 이제 다시 한두 장을 읽는 방법에 따라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에 대한 초월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책의 대답은 인간의 본성이나 신의 본성에 달려 있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고대 근동에서 발견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ANE 문헌은 친구 입장에서 호일로 사용됨[25:14-26:32]

그렇다면 옳기는 고대 근동 문학의 어떤 부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문학을 호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고 청중이 얼마나 파산했는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다른 대답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은 옳기의 대화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폭넓은 대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 대화에 들어가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입장을 취하고 고대 세계에서 단순히 사용할 수 없었던 대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신들. 욥의 친구들은 고대 근동의 사상을 대표하지만 욥은 그것에 저항하고 책은 그것에 저항합니다.

요약: 욥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다[26:32-28:32]

자, 이스라엘의 뚜렷한 특징을 요약해 봅시다. 우선 큰 공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그것이 욥기 22장 3절과 같은 곳에 표현되어 있음을 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고대 근동의 요소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욥은 고대 세계가 제공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 범죄를 고려하거나 제안하거나 추구하는 의식적 구제책이 없으며 유회책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지혜는 주요 주제이며 실제로 이 책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발견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단순히 신성한 권리였습니다. 신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신성한 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과 그분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욥기는 고대 세계와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정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반대되는 관점을 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고대 세계의 신들 중 하나에 대해 주어질 수 있었던 그 어떤 것과도 매우 다른 하나님, 야훼의 계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욥과 고대 근동입니다. [28:32]